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2004. 6.

KOTRA 해외조사팀

- 목 차 -

I. 개요

1. 연구배경.....	1
2. 분석 DATA.....	1

II. 해외진출 국내 IT 기업 현황

1. 해외 투자진출 현황.....	3
2. 지역별 진출 현황.....	4
3. 국가별 진출 현황.....	5
4. 형태별 진출 현황.....	7
5. 산업분류별 진출 현황.....	8
6. 대기업 진출 현황.....	9
7. 연도별 진출 현황.....	11
8. 지역별-연도별 진출 현황.....	12
9. 산업분류별-연도별 진출 현황.....	13
10. 한국인 파견 현황.....	15
11. 현지인 고용 현황.....	16

III. 시사점

1.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노력 강구.....	18
2. 투자진출 지역 다양화 추구.....	19
3. 투자업종의 다변화 추구.....	20

[첨부] 국내 IT 기업의 국가별 진출 현황	21
--------------------------	----

I. 개요

1. 연구배경

- '90년대 이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도 최적의 생산요소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 투자진출에 주력
- 국내 IT 기업 역시 상기 요인 및 최근의 국내수요 감소로 인하여 해외 투자진출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이며, 차세대 기간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IT 종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IT 기업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분석 DATA

- 본 분석 DATA는 '2004/2005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수록되어 있는 총 6,623개사의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음
- 동디렉토리는 전세계 102개 KOTRA 해외무역관의 실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IT 산업의 세부적인 분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발표한 'IT 산업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표1>과 같이 재분류하였음

<표 1> IT 산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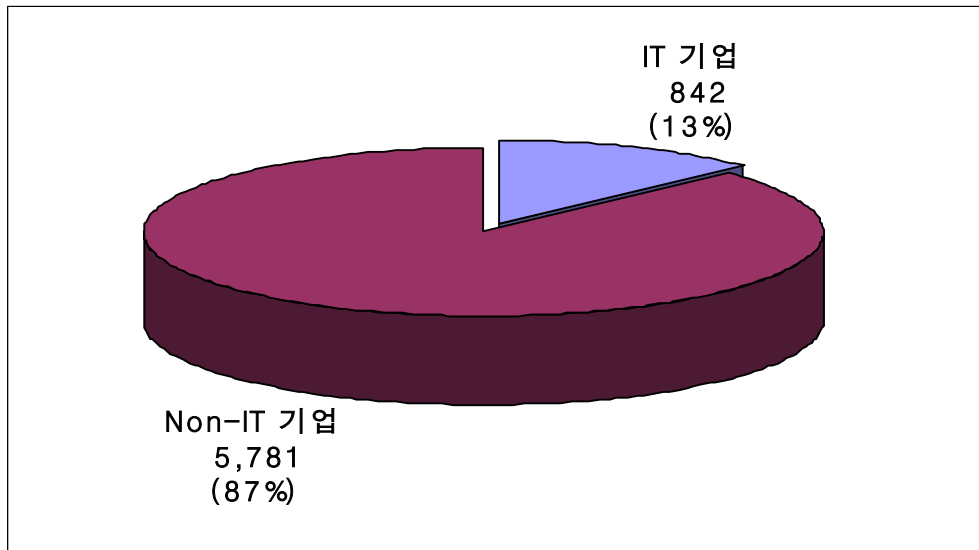
구분	세부 분류	주요 품목
정보통신 서비스	유·무선통신 서비스	전화 및 이동통신 서비스 등
	부가통신 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정보통신 기기	통신기기	유무선 전화기, 교환기 등
	정보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
	방송기기	TV, VOD 기기 등
	부품	반도체, 전자관, 저항기 등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각종 S/W, 게임 저작도구 등
	컴퓨터 관련 서비스	SI, 콘텐츠 개발, 컨설팅 등

II. 해외진출 국내 IT 기업 현황

1. 해외 투자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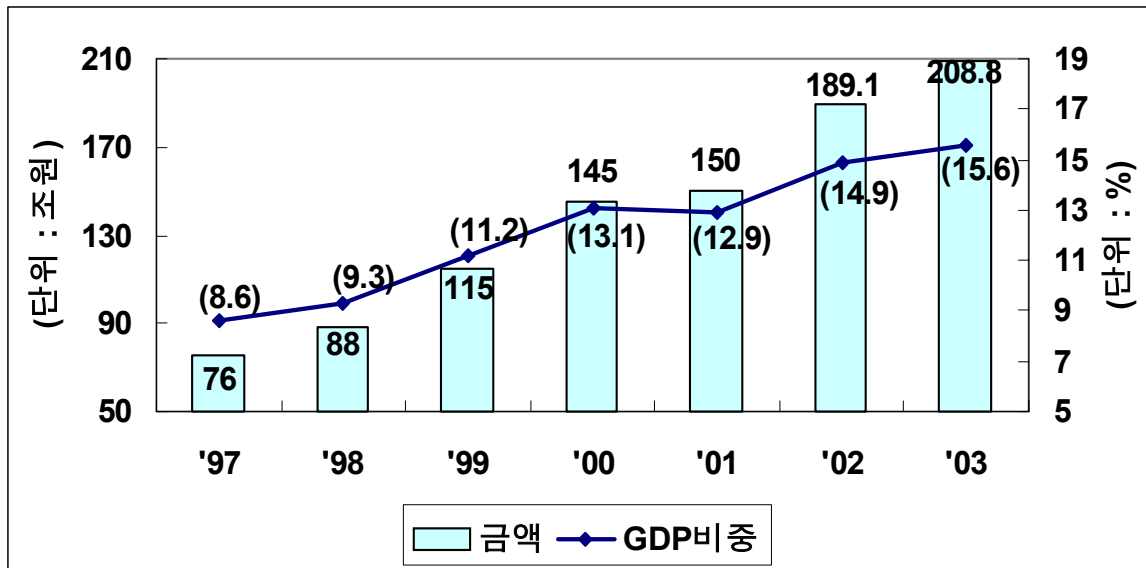
- 2004.5월말 현재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을 포함한 해외 투자진출 한국 IT 기업은 총 84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해외진출 기업 6,623개사 중 13% 해당하는 수치임

<그림 1> 국내 IT 기업과 Non-IT 기업의 해외진출 분포



- 이 수치는 단일산업 종사기업의 해외진출 수치로 보았을 때 적지 않은 것이지만, IT 산업이 정부의 중점 산업으로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이라는 점과 국내 IT 산업의 생산규모가 12%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해외 투자진출 실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세계 IT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IT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최근의 세계경제 회복과 더불어 국내 IT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 국내 IT산업 생산규모 및 GDP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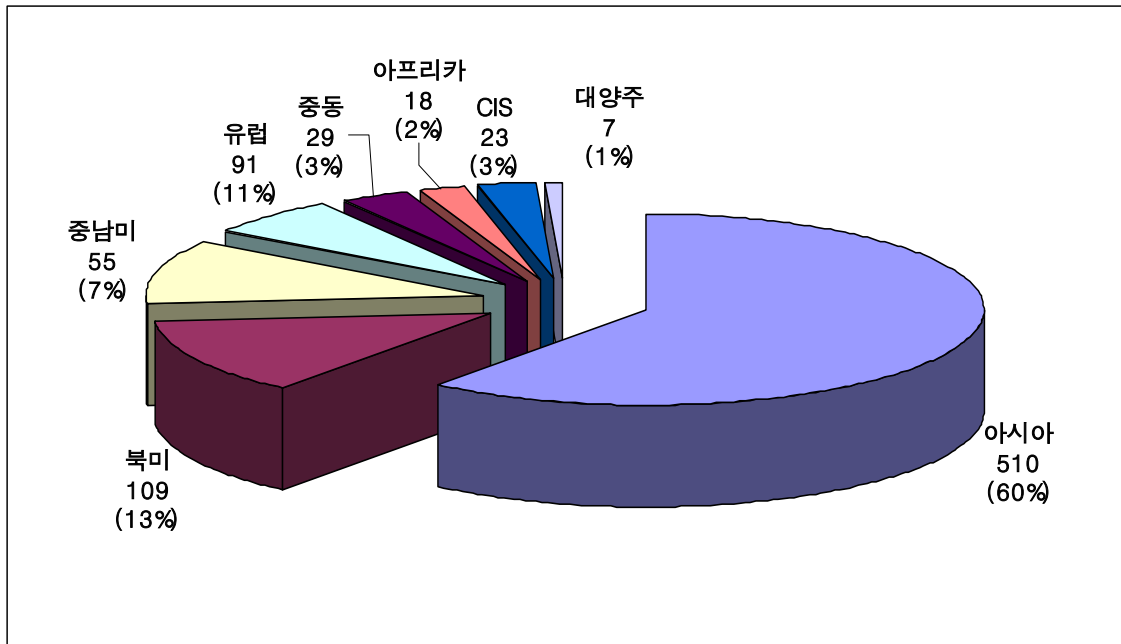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T Industry Outlook of Korea 2004")

2. 지역별 진출 현황

-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지역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진출 기업이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510개사에 달해 동지역이 우리 IT 기업의 주요 투자진출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역편중 현상은 구매력이 높은 선진지역 및 미개척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힘
- 특히, 유럽정보기술전망대(EITO: Euro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의 200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IT 시장 중 미국과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2%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지역으로의 진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한편, 아시아에 이은 투자진출 다수 지역으로는 북미와 유럽지역으로 각각 109개사(13%)와 91개사(11%)가 진출하고 있음

<그림 3> 지역별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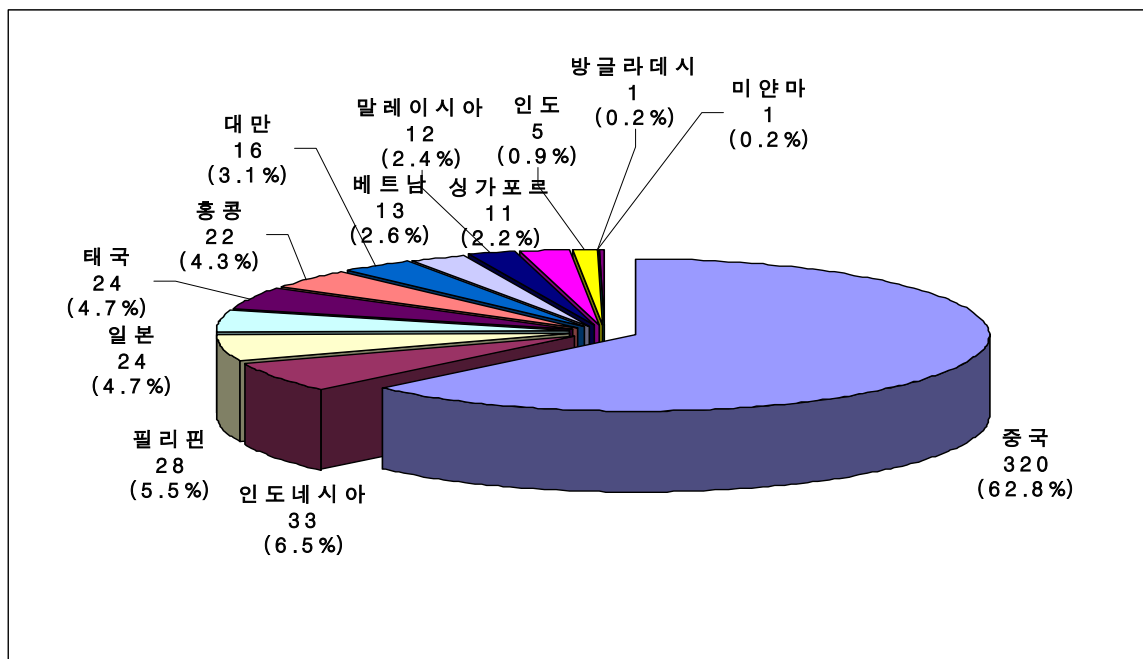
주) 아시아에 중국 포함

3. 국가별 진출 현황

- 우선, 아시아권의 국가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320개사 (홍콩 미포함)로 아시아 진출기업 중 63%에 달하는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음
- 아시아권에서도 IT 선진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각 4.7%와 3.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
- 신흥 IT 강국으로 지목되는 인도의 경우, 0.9%를 차지하여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이 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및 S/W 개발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진출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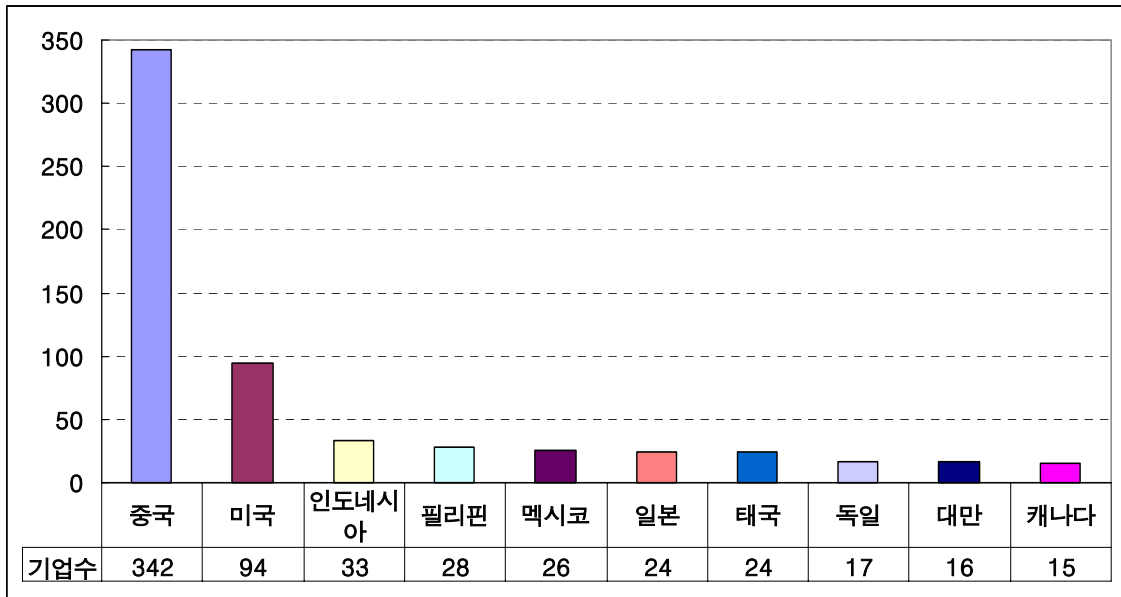
- 또한, 이와 같은 극심한 지역편중 현상은 우리 경제의 대중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외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그림 4> 아시아 국가별 진출현황



- 이 외에, 전세계적으로는 중국에 이어 미국에 94개사가 진출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시장임을 입증함
- 유럽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일이 17개사로 10대 국가에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IT 기업의 해외진출 10대 국가



주) 중국에 홍콩 진출 기업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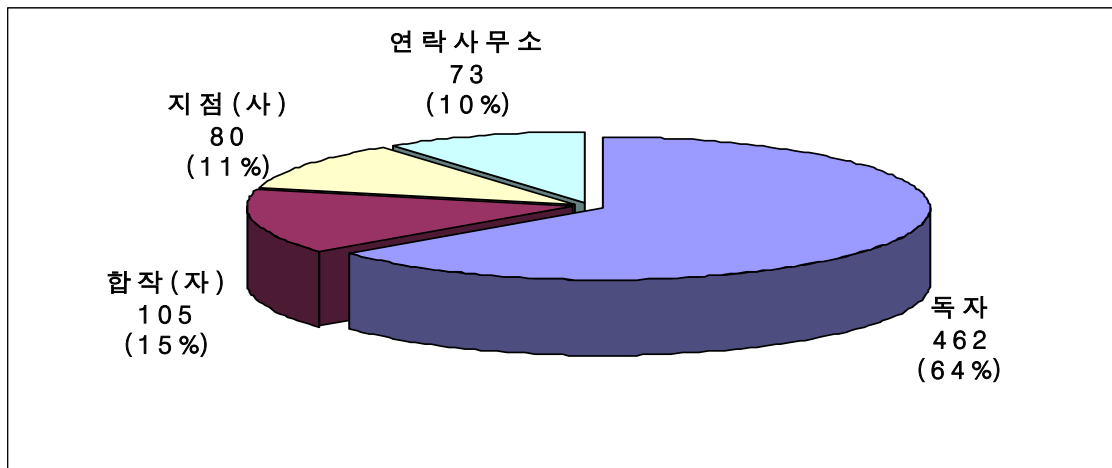
4. 형태별 진출 현황

-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IT 기업은 해외 투자시 법인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자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IT 기업이 현지의 선진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진출시 합작 투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투자에 의한 '독자법인' 설립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462개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국 파트너와

의 합작(또는 합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합작법인’ 형태가 15%, 105개사로 뒤를 이음

- 아울러, 지점(또는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각각 11%(80개사)와 10%(73개사)를 차지하였음

<그림 6> 투자형태별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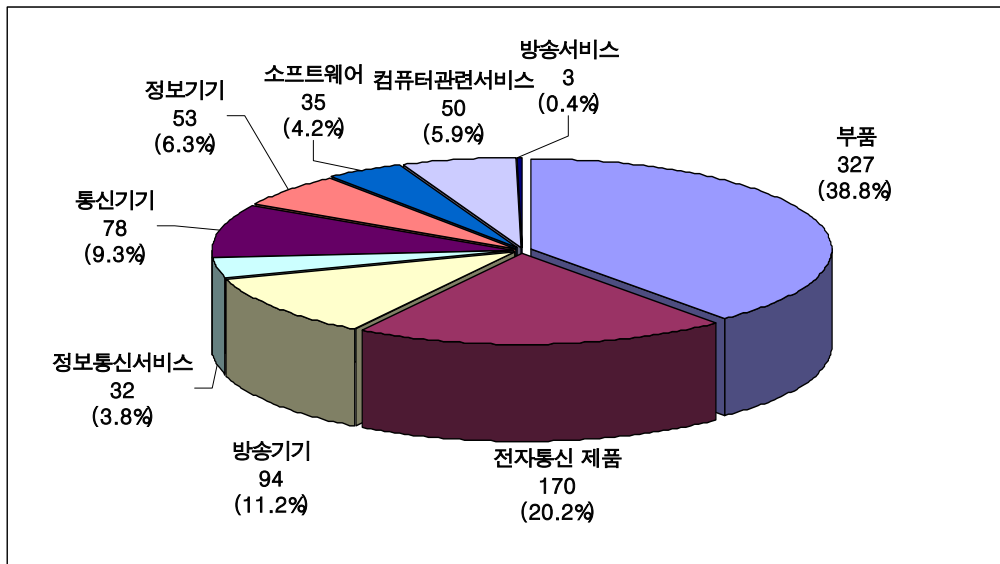
5. 산업분류별 진출 현황

- IT 기업의 세부적인 산업분류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광의의 전자통신제품(정보기기, 방송기기 및 통신기기 등 포함)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 총 395개사로 전체의 46.9%를 차지함
-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전자통신제품을 세분화하여 정보기기, 방송기기, 통신기기 등으로 구분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및 대우전자 등 종합가전 기업만을 전자통신제품 기업으로 분류함
- 이 경우 반도체, 다이오드, LCD, IC, 전자관 등 정보통신기기 부품제조업체가 327개사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며 수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협의의 전자통신제품이 170개사(20.2%), 방송기기가 94

개사(11.2%) 등에 달함

- 반면, 시스템 통합(SI)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 및 유·무선통신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각각 5.9%와 3.8%로 낮게 나타남
- 이와 관련, 국내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반면,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초기 또는 발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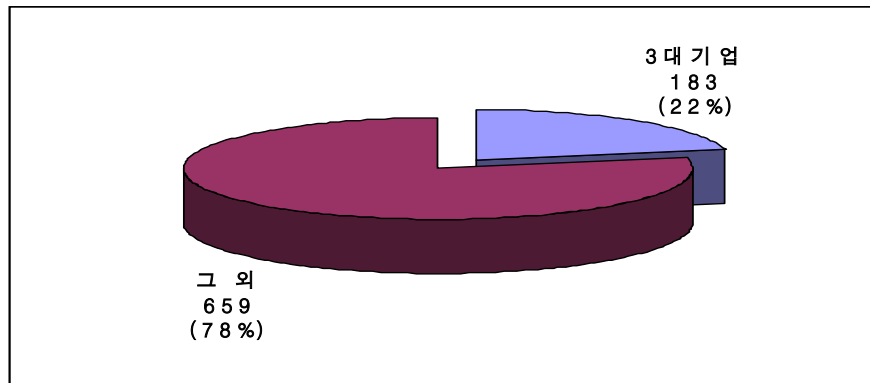
<그림 7> 산업분류별 진출 현황



6. 대기업 진출 현황

- LG전자, 삼성전자 및 대우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대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LG전자 76개사, 삼성전자 72개사 그리고 대우전자 35개사로 총 183개가 진출하여 전체 해외진출 기업 중 22%를 차지함

<그림 8> IT 대기업의 진출 현황



- 이는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앞으로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 IT 기업의 투자확대 등 투자주체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 진출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등을 종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전자통신제품'군에 LG전자 73개사, 삼성전자 56개사, 대우전자 35개사가 진출하고 있음
- 이 밖에, 삼성전자는 부품 10개사, 정보기기 3개사, 통신기기 2개사, 소프트웨어 1개사 등 비교적 세분화하여 진출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별로는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아시아·대양주 지역 및 유럽지역을 중점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반면, 대우전자는 유럽과 중남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기업수가 적은 면모를 보임

<표 2> IT 대기업의 지역별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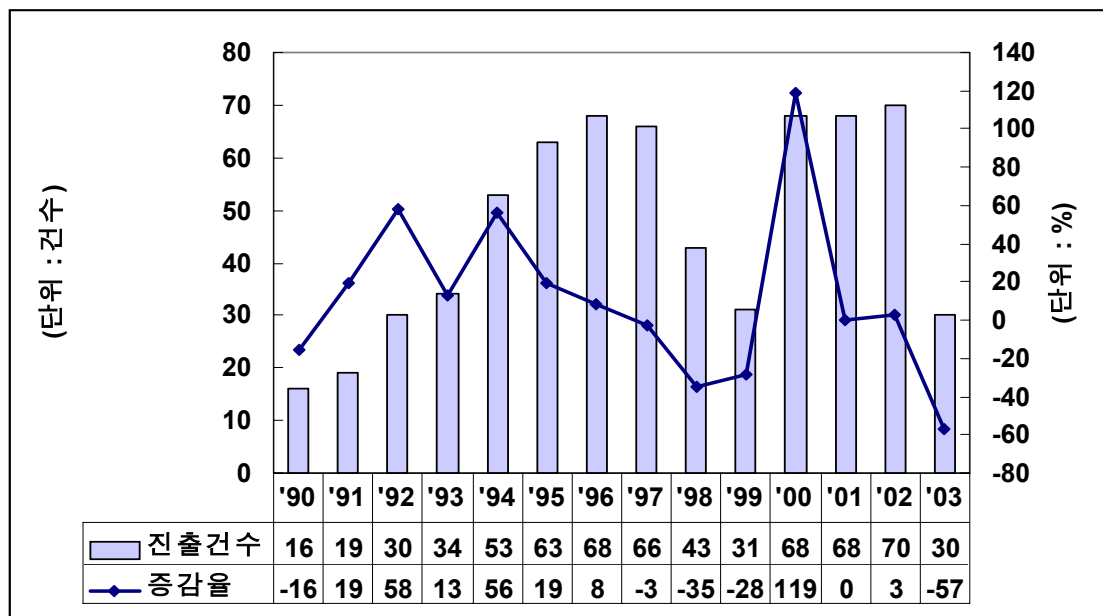
구분 지역명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기업수 (개사)	비율 (%)	기업수 (개사)	비율 (%)	기업수 (개사)	비율 (%)
아시아 대양주	22	28.9	22	30.6	5	14.3
유럽	18	23.7	14	19.4	10	28.6
중동 아프리카	13	17.1	12	16.7	6	17.1
중남미	11	14.5	9	12.5	7	20.0
북미	6	7.9	11	15.3	2	5.7
CIS	6	7.9	4	5.6	5	14.3
합계	76	100	72	100	35	100

7. 연도별 진출 현황

-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인 기업의 글로벌화와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급속도로 증가
- '90년부터 '03년까지 연평균 44.5개의 국내 IT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특히 IT 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붐을 일으켰었던 '94년부터 '97년까지는 연평균 62.5개의 IT 기업이 진출
-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성장세가 전년대비 -35%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00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IT 시장의 침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98년 이전의 증가세를 상회하는 투자진출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
- 다만, <그림 9>에서 '03년 진출기업 수가 30개사에 불과한 것은 진출 초기단계에서 경영준비 활동 등으로 금번 조사에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9> 연도별 진출 현황 ('9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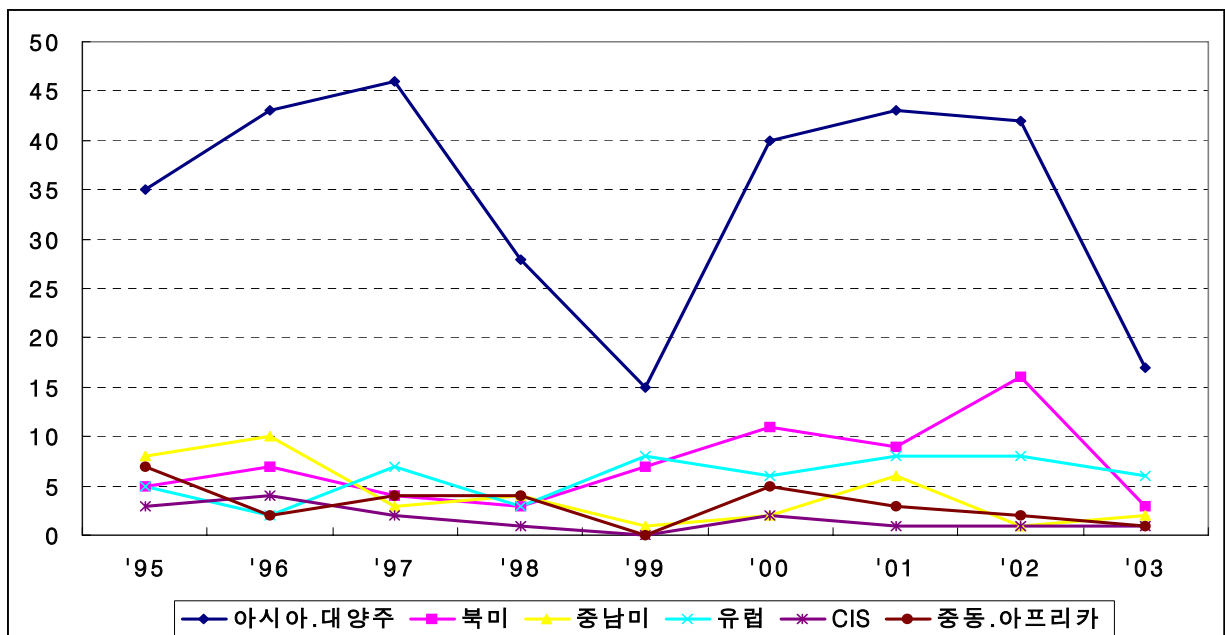


8. 지역별-연도별 진출 현황

- 또한 지역별-연도별 진출현황 역시 대체적으로 <그림 9>와 같이, '97년 이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다가 '98-'99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극심한 침체기에 있었던 '99년도에 유독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IT 기업 진출은 전년대비 상승세를 기록함은 물론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진출건수를 나타내고 있음

- 이것은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R&D 분야를 강화하고, 선진경영 및 기술 습득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려는 경영전략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북미와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 상술한 바와 같이 - 두 지역의 시장규모가 전세계 IT 시장 비중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현상임
- 나아가,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하여 IT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0> 지역별-연도별 진출 현황 ('95~'03)



9. 산업분류별-연도별 진출 현황

- 기업들의 산업분류별 진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강세를 보

여운 부품산업의 진출 증가세가 지속됨

- 이와 더불어 2000년도 이후 S/W 개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SI 등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특히, SI 및 네트워크 분야는 이미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해외진출 증가세가 기대됨
- 뿐만 아니라, SI, S/W,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등 IT 서비스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동향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 아태지역 국가별 IT 컨설팅 시장 규모

(단위 :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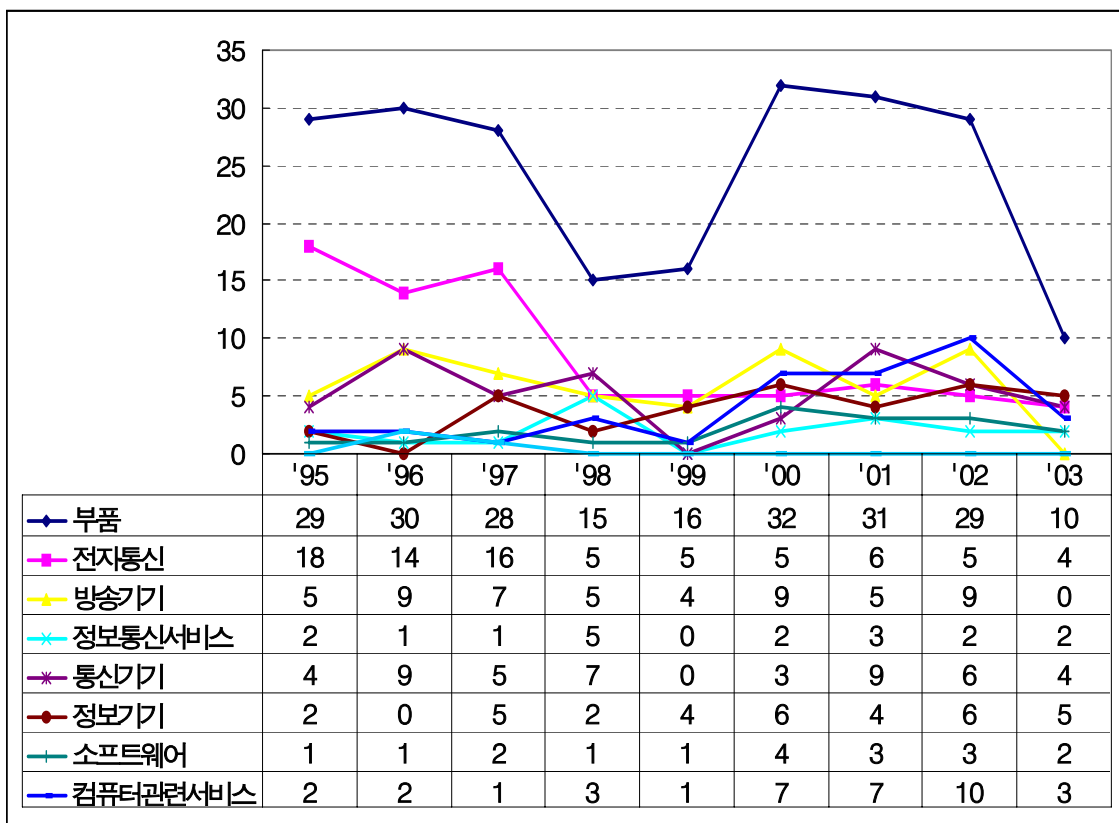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호주	816	828	863	918	1,022
중국	214	257	328	437	592
홍콩	64	67	73	82	93
인도	11	13	15	19	23
인도네시아	11	12	14	16	19
말레이시아	49	52	56	63	71
뉴질랜드	88	91	95	99	102
싱가포르	132	136	146	159	178
한국	219	228	247	276	322
대만	93	98	113	136	162
태국	26	30	35	40	47

기타	26	29	33	39	46
계	1,748	1,843	2,019	2,284	2,678

(자료 : KRT 2003 IT 시장백서 (재인용))

- 또한, 외환위기 기간 동안 주춤하였던 통신기기 분야 역시 2000년도 이후 노키아, 모토로라 등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해외 투자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1> 산업분류별-연도별 진출 현황 ('95~'03)



10. 한국인 파견 현황

- 본사 파견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1~5명을 파견한 기업이 총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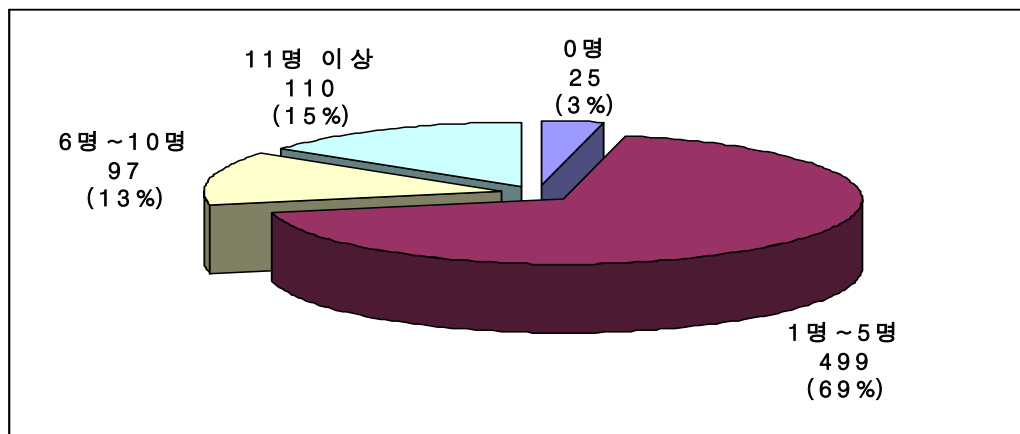
개사로 전체의 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1명 이상 파견 기업이 110개사로 15%를 차지하여 국내의 기술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본사 파견직원의 숫자로 기업의 현지화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본에 진출한 기업이 가장 현지화에 앞서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 진출 기업의 29%는 본사 파견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명만 파견하고 있는 기업도 17%에 달하여 0~1명 파견 인원이 전체의 46%를 차지

- 이에 반해, 중국 및 중남미, CIS 등의 지역은 10명 이상 파견 기업도 약 20%를 점하고 있어, 현지화 보다는 국내 기업 자체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2> 한국인 직원 파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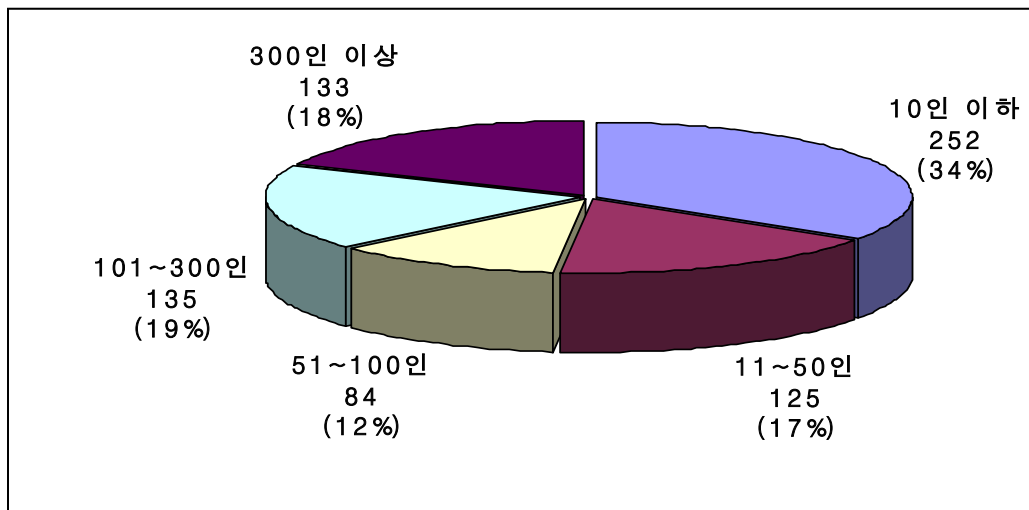
11. 현지인 고용 현황

- 한편 현지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10인 이하가 총 252개사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1~300명이 135개사로 19%

에 이르고 있음

- 특히, 10인 이하 기업 중에서도 5명 이하인 기업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사실 역시 해외진출 국내 IT 기업의 현지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북미와 일본의 경우 본사 파견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가 각각 54%와 61%인데 반하여, 두 지역 모두 70% 이상의 기업이 10명 이하의 현지인 채용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 규모 자체가 소규모 형태인 것으로 분석됨
- 북미와 일본의 경우 각각 73%와 83%의 기업이 10명 이하의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현지인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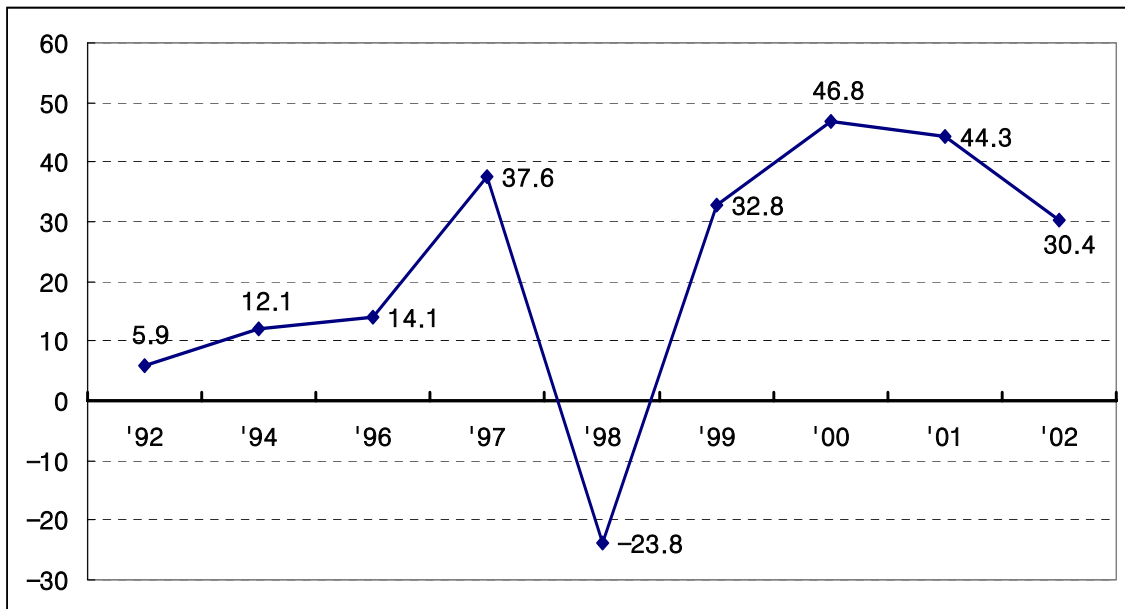
III. 시사점

1.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노력 강구

-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IT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비중의 전체의 13%에 불과함
- IT 산업은 우리 나라의 차세대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국내 시장 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14> I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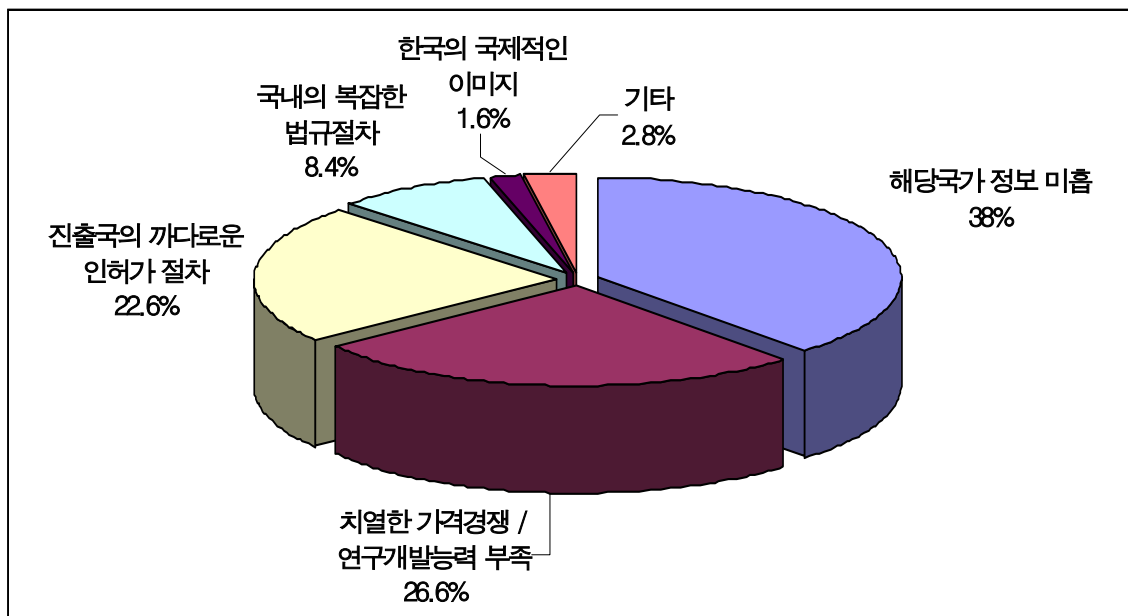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T Industry Outlook of Korea 2004")

- 아울러, 세계 IT 시장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 역시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 투자진출 지역 다양화 추구

- 투자진출 지역의 편중현상이 지나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고,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당국가의 정보 미흡'이라고 함

<그림 15>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설문결과)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지원하는 많은 유관기관에서 국가정보 및 투자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에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동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IT 기업들이 해외 투자진출을 고려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중국(46.4%), 미국(16.2%), 동남아(13.8%), 일본(9.4%), 유럽(8.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는 국내 IT 기업의 투자진출 지역에 대한 편중 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결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증명하는 것임

3. 투자 업종의 다변화 추구

-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업종의 59%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 또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음
- 2000년 이후, 전반적인 IT 산업 침체기에도 국내 IT 산업은 S/W 및 솔루션 부문의 강세로 인하여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음
- 해외 IT 시장 역시 동부문(S/W 및 솔루션)의 성장률 증가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진출 IT 기업 역시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업종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첨부] 국내 IT 기업의 국가별 진출 현황

연번	국가	기업수	비율	대륙(지역)
1	중국	342	40.6%	아시아
2	미국	94	11.2%	북미
3	인도네시아	33	3.9%	아시아
4	필리핀	28	3.3%	아시아
5	멕시코	26	3.1%	중남미
6	일본	24	2.9%	아시아
7	태국	24	2.9%	아시아
8	독일	17	2.0%	유럽
9	대만	16	1.9%	아시아
10	캐나다	15	1.8%	북미
11	베트남	13	1.5%	아시아
12	말레이시아	12	1.4%	아시아
13	영국	12	1.4%	유럽
14	브라질	11	1.3%	중남미
15	싱가포르	11	1.3%	아시아
16	러시아	10	1.2%	CIS
17	아랍에미리트	10	1.2%	중동
18	헝가리	9	1.1%	유럽
19	네덜란드	8	1.0%	유럽
20	호주	7	0.8%	대양주
21	남아프리카공화국	6	0.7%	아프리카
22	스페인	6	0.7%	유럽
23	우즈베키스탄	6	0.7%	CIS
24	폴란드	6	0.7%	유럽
25	인도	5	0.6%	아시아
26	루마니아	4	0.5%	유럽
27	오스트리아	4	0.5%	유럽
28	요르단	4	0.5%	중동
29	우크라이나	4	0.5%	CIS
30	이스라엘	4	0.5%	중동
31	이집트	4	0.5%	중동

32	콜롬비아	4	0.5%	중남미
33	터키	4	0.5%	유럽
34	프랑스	4	0.5%	유럽
35	나이지리아	3	0.4%	아프리카
36	모로코	3	0.4%	아프리카
37	사우디아라비아	3	0.4%	중동
38	스웨덴	3	0.4%	유럽
39	아르헨티나	3	0.4%	중남미
40	알제리	3	0.4%	아프리카
41	이탈리아	3	0.4%	유럽
42	체코	3	0.4%	유럽
43	칠레	3	0.4%	중남미
44	카자흐스탄	3	0.4%	CIS
45	케냐	3	0.4%	아프리카
46	파나마	3	0.4%	중남미
47	페루	3	0.4%	중남미
48	그리스	2	0.2%	유럽
49	덴마크	2	0.2%	유럽
50	베네수엘라	2	0.2%	중남미
51	이란	2	0.2%	중동
52	파키스탄	2	0.2%	중동
53	포르투갈	2	0.2%	유럽
54	미얀마	1	0.1%	아시아
55	방글라데시	1	0.1%	아시아
56	벨지움	1	0.1%	유럽
57	아일랜드	1	0.1%	유럽
	TOTAL	842	100.0%	